

하동철 추모展, 헌정 – 기리고 그리다

Homage – In Memory of Ha Dong Chul



하동철 선생님과 제자들, 1996년, 스케치 여행

전시개요

전 시 명 : 하동철 추모전, 헌정 – 기리고 그리다

전시기간 : 2016년 11월 11일(금) – 11월 27일(일)

전시장소 : 학교재갤러리 신관

문 의 : 02-739-4937

출 품 작 : 총 59점

담 당

김한들 hkim@hakgojae.com

02-739-4937

1. 전시 개요

학교재갤러리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신관에서 고(故) 하동철(1942-2006) 추모 전시 '헌정 – 기리고 그리다'를 개최한다. 하동철 작가의 10주기를 맞아 그의 대표작을 공성훈, 윤동천, 임자혁 등 제자 60여 명의 작품과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하동철은 '빛의 작가'로 널리 알려졌다. 빛을 우주 질서를 상징하는 불변의 요소이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고 25년 동안 빛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했다. 16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베니스비엔날레 등 다수의 국내외 회화 및 판화 전시에 참여하였다.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였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재불(在佛) 작가 한묵(1914-2016)이 별세했다. 하동철, 한묵 등은 60년대 말부터 기하학적 추상화의 선구자로 작품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자로 교편을 잡아 한국 현대 미술계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들의 활동과 업적은 우리가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위대한 유산이다. 이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 미술사를 돌아보는 동시에 이를 일구었던 작가들을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한다. 또한, 제자들이 더 큰 업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 전시 주제

한국현대미술사 형성, 그 주역을 만나보는 시간

하동철이 활동을 시작하던 1960년대 전반, 한국 현대 미술사에는 기하학적 추상이 새로운 추상미술로서 등장하였다. 하동철은 이승조, 이강소, 한묵, 이건용, 강국진, 김구림 등과 함께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류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07년 <추상미술, 그 경계에서의 유희> 전시에서 이들의 작품을 묶어 선보인 바 있다. 이들은 선명한 원색과 기하학 추상 형태, 시각적 효과 등으로 평면성과 내면의 세계를 강조한 작품들을 소개했다. 이는 이우환, 박서보, 하종현, 권영우, 윤형근, 정창섭 등 단색화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동철은 회화뿐 아니라 드로잉, 판화, 설치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작업을 펼쳤다. 미국 템플대학교 타일러 스쿨 오브 아트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한 그는 특히 판화 작품을 많이 선보였다. 더불어 성신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국내 첫 판화과와 판화전공을 개설하는데 앞장섰을 정도로 판화의 정착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썼다. 1985년부터는 국립현대미술관에 판화 교실을 만들어 2000년대 초반까지 수업했다.

이번 전시는 하동철의 1주기, 5주기에 전시에 이은 추모 전시다. 해외에서는 타계한 작가에 대한 기념사업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들은 미술관을 운영하거나 재단을 만들어 작가 작품을 꾸준히 전시하고 알려 그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도록 노력한다. 스페인 피카소 재단에서 지난 2013년, 재단 설립 25주년 기념 세계 순회전을 마련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국내는 그 활동이 미비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동철과 그의 작품을 기억하기 위한 지속적 움직임은 의미가 크다.

하동철의 위대한 유산, 제자들의 활발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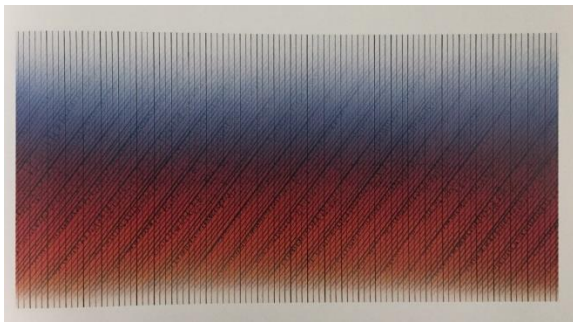
하동철은 1979년 성신여자대학교에 교수, 1985년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에 교수로 부임하며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펼쳤다. 이 기간에 소묘와 유화, 표현기법 등 여러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하여 그의 제자들은 회화, 판화만이 아니라 미디어 예술, 심지어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작품을 출품한 윤동천(b.1957, 1975-1982 제자)은 하동철의 뒤를 이어 서울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문을 쓴 강태성은 한국 미술이론학회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비평, 이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업 작가로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제자들도 있다. 공성훈(b.1965, 1986 제자)은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과 SBS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으며 배준성(b.1967, 1986-1989 제자)은 2000년,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빛의 작가, 하동철

하동철은 '빛의 작가'로 불린다. 그는 25년 넘게 빛을 주제로 하는 작업을 펼쳤다. 그에게 빛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다. 어린 시절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본 빛, 학질을 앓으면서 본 태양의 빛 등이다. 작가에게 빛은 단순한 물리현상으로서 색의 스펙트럼이 아니다. 우주 삼라만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창이자 고리로 작품세계의 모티프와 근원이 됐다. 기억의 빛, 마음의 빛, 신념의 빛을 평면 위에 구현하고자 했다.

전시 대표 작품



하동철, 빛 02-03, 2002, 캔버스에 아크릴, 120x240cm

작품은 빛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짧은 선을 수평과 수직으로 반복해서 펼쳐 놓는다. 교차하는 어지러운 직선들의 예각이나 둔각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다. 기하학적이며 예리한 선들이 교차한다.

3. 전시 서문

고(故) 하동철 선생님과 제자들

강태성 (예술학)

청명한 하늘 아래 은행잎이 가득한 가을, 고(故) 하동철 선생의 10주기 전시회를 맞이하니 가슴이 아려온다. 10년 전 뜻밖의 부고에 놀랐다. 잘못된 정보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사실임을 확인했을 때 머리에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 장례식장에서 슬픈 감정과 그분과의 많은 기억들이 병렬되어 힘들었던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10주기 전시회를 보게 되니 더 많은 기억과 마음들이 교차한다. 그분에 관한 개인적인 기억을 떠올리면, 선생님은 항상 자상하게 제자들을 배려하셨다. 물론 가끔 제자 사랑하는 마음이 크셔서 무섭게 꾸짖으실 때가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그립다. 선생님은 미술만 가르치시지 않으셨다. 그분은 제자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걱정을 해주셨던 정이 많은 어른이었다.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일을 할 때면, 떡을 사다 주시며 특유의 환한 웃음을 보이셨던 날이 생각난다. 유학 때 일이었다. 한번은 파리에 오셨다 귀국하신 후 편지까지 직접 쓰셔서 보내주셨다. 편지를 읽을 때, 선생님의 정이 가득 담긴 단어들로 마음이 따뜻해졌다. 깊은 가을밤이라 그런지 지금은 깊은 회한이 아련하게 남는다.

하동철 선생님은 1965년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1969년에 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한국 현대 작가로 활동을 하였다. 특히 그는 대학교 4학년 재학시절 국전에 특선을 하는 등, 1975년까지 특

선 6회와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1977년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타일러대학에서 판화를 공부하였다. 귀국 후, 그는 1979년 성신여자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며 전문적인 활동을 펼쳐나갔다. 1983년 대학원에 판화과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전문적인 판화교육을 이끌었다. 1985년에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에 교수로 부임하며, 소묘와 유화, 표현기법 등 여러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1988년에 서양화과 여러 교수들과 함께 대학원에 판화 전공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 미술계에서도 1970년대 이후 추상회화를 발전시켰고, 특히 판화가로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선생님은 유화로는 어둠 속에 나타나는 빛을 그리셨다. 노을의 색면을 화면에서 한정 없이 자유로운 빛으로 등장시키며, 선생님은 그 위에 실을 튕겨 물감이 터지듯 형성하는 선들을 가로와 세로로 일정하게 엮어진 추상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그분은 판화가로서도 다양한 판화 제작하였다. 특히 탁본에 관심을 가져 한국의 전통적인 조형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인용과 축각적인 형상화의 의미, 아나바시스(anabasis)의 의미를 실현시켰다. 이 아나바시스는 탁본이 오브제를 아래에 두고 이미지를 종이 위로 떠올리는 행위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용어이기도 하다. 그의 탁본은 '자취'로서의 의미를 형상화시켰다. 작업 전에는 탁본의 모태가 되는 오브제는 있었지만 작품은 없었다. 후에 전시장에는 모태가 되는 오브제는 그곳에 없지만 그 자취가 남아 있어 존재적으로 유-무, 무-유가 교차된다.

또한 서울대, 성신여대만이 아니라 중앙대, 추계예대 등 여러 대학에서 그의 제자들이 배출되었다. 또한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제자들이 전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의 제자들은 회화, 판화만이 아니라 미디어 예술, 심지어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배출되었다. 이들 제자들은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며, 선생님의 예술에 관한 열정과 제자에 대한 사랑, 미술계에서의 큰 활동들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되고 있다. 이 전시를 통해 더욱 선생님의 활동을 기리며, 제자들의 더 큰 업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에 보답하는 모습을 본다.

4. 참여 작가 명단

강영민(b.1969, 1988-2008 제자), 강정현(b.1978, 1999-2006 제자), 고길천(b.1956, 1981-1985 제자), 고자영(b.1956, 1991-1994 제자), 공성훈(b.1965, 1986 제자), 국대호(b.1967, 1985-1991 제자), 권경애(b.1952, 1985-1991 제자), 권기동(b.1964, 1984-1993 제자), 권용래(b.1963, 1982-1992 제자), 김경수(b.1965, 1991-1998 제자), 김미로(b.1975, 2001-2003 제자), 김수강(b.1970, 1989-1993 제자), 김익모(b.1956, 1981 제자), 김일룡(b.1962, 1996-2000 제자), 김정선(b.1972, 1993-1995 제자), 김제민(b.1972, 2001 제자), 김태진(b.1971, 1990-1999 제자), 김형관(b.1970, 1991-1996 제자), 박광열(b.1955, 1973 제자), 박성진(b.1957), 박성환(b.1973, 1992-1999 제자), 박현주(b.1968, 1988-1990 제자), 배남경(b.1971, 1991-2006 제자), 배석빈(b.1962, 1982-1986 제자), 배준성(b.1967, 1986-1989 제자), 백주미(b.1976, 1998 제자), 신수진(b.1972, 1994-1997 제자), 안성규(b.1966, 1986-2000 제자), 안정민(b.1952, 1984-1987 제자), 오영재(b.1964, 1984-1986 제자), 이상호(b.1962, 1991-1993 제자), 윤동천(b.1957, 1975-1982 제자), 윤주원(b.1975, 1998-2001 제자), 이강우(b.1965, 1983-1992 제자), 이계원(b.1963, 1986-1992 제자), 이만나(b.1971, 1989-2001 제자), 이상은(b.1967, 1986-1990 제자), 이순희(b.1956, 1981-1983 제자), 이용규(b.1959, 1983-1990 제자), 이

창남(1989-1991 제자), 이현진(b.1976, 1995-2001 제자), 이혜영(b.1963, 1985 제자), 임상빈(b.1976, 1995-2003 제자), 임자혁(b.1976, 1995-2001 제자), 장문걸(b.1960, 1985 제자), 장양희(b.1976, 1994-2000 제자), 전인아(b.1970, 1994-1997 제자), 정상곤(b.1963, 1984-1991 제자), 조명식(b.1963, 1983-1995 제자), 조혜정(b.1973, 1991-1997 제자), 최미아(b.1958, 1985-1986 제자), 최성원(b.1964, 1984-1992 제자), 하원(b.1971, 1989-1994 제자), 하진(b.1973, 1994-1995 제자, 한계륜(b.1969, 1993-1999 제자), 황연주(b.1972, 1995-1996 제자), 황인선(b.1974, 1994-1997 제자)